금융

Sector Issue Brief 2026. 03. 09

해외 사모대출 리스크와 국내 금융주 영향 점검

Check Point

- 해외 사모대출 우려 지속
- 국내외 금융주 수급에 부정적 영향
- 이슈의 개별성과 손실규모 감안시 금융권 불안심화 가능성은 낮아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블루아울에 이어 블랙록까지.. 해외 사모대출 노이즈 지속

▶ 블루아울의 비상장 BDC(기업성장펀드)인 OBDC II의 환매중단 사태에 이어 최근 블랙스톤과 블랙록의 사모대출 펀드 환매요구가 확대되는 등 해외 사모대출 관련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음. 지난 2월에는 영국 모기지업체인 MFS가 이중담보 등 사기의혹으로 파산했으며, 25년에도 미국의 퍼스트브랜즈, 트라이컬러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난 바 있음

▶ 무디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20년 1.2조달러에서 '25년 2.3조 달러로 5년 사이 두배로 급증. 미국이 사모대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및 기술섹터의 비중이 크고 이들 산업에 속한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수요와 운용사 및 금융권의 자금공급 니즈가 맞물리면서 급성장

▶ 사모대출의 특성상 1) 은행대출에 비해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2) 유연한 대출조건으로 인해 중복담보 등 심사관련 부정이슈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3) 산업 및 기술변화에 따른 자금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남. 25년부터 나타난 일련의 사태 역시 공통적으로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부실과 함께 AI 확산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우려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내외 금융주 수급에 부정적 영향. 제한적 규모와 이슈의 개별성 감안시 금융권 불안 가능성 낮아

▶ 미국 은행권의 사모대출 규모는 약 3,000억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5개 은행이 1,700억달러를 보유. 사모대출은 분류상 미 은행권의 비은행금융기관대출 1.8조달러에 포함되고, 총대출 13조달러 대비로는 약 2% 비중에 불과. 따라서 글로벌 주요 금융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국내 금융권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판매잔액은 17조원이며, 개인투자자 규모가 4,800억원. 최근 금융당국은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사모대출 현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일부 보험사도 익스포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

▶ 연초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금융주 수익률은 저조한 모습. 국내 금융주 역시 최근 한달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사모대출 부실우려가 해외뿐 아니라 국내 금융주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로 판단. 하지만 이슈의 개별성과 최종적인 손실규모를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권의 유동성 혹은 신용위험을 야기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예상. 따라서 국내 금융주 조정을 기회로 활용 권고

국내도 BDC(기업성장펀드) 도입. 생산적금융 관련 금융권 자금운용 수요 일부 흡수 예상

▶ 한편 국내에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BDC)가 도입되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 뿐 아니라 금전대여 형태로도 40% 한도 내 투자가 가능해 사실상 국내에서도 사모대출 시장이 열리는 셈

▶ 생산적금융 추진 과정에서 금융권의 자금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외사례를 참고하면 투자심사 등 강화된 리스크 관리 조치가 병행될 필요

그림1 **해외 사모대출 관련 이슈**

날짜	회사(이슈)	내용
'25.09	트라이컬러(미 자동차 대출업체) 파산	▷담보가치 허위기재, 이중담보 설정 등 대출사기
'25.10	퍼스트브랜즈(미 자동차 부품업체) 파산	▷경영진 회계조작 등. BofA, UBS 등 일부 금융사 손실인식
'26.02	블루아울캐피탈(미 PEF 운용사) 환매중단	▷OBDC II(비상장 BDC) 환매중단. 소프트웨어 섹터 부진 영향
'26.02	MFS(영국 모기지 여전사) 파산	▷이중담보 이슈 등 사기의혹. 바클레이즈 등 금융권 피해
'26.03	블랙스톤 환매요청, 임직원펀드 등으로 대응	▷사모대출 펀드(BCRED) 38억달러(7.9%) 환매 요청
'26.03	블랙록 환매요청, 일부 인출제한	▷사모대출 환매요청 증가에 인출한도 제한, 일부 펀드 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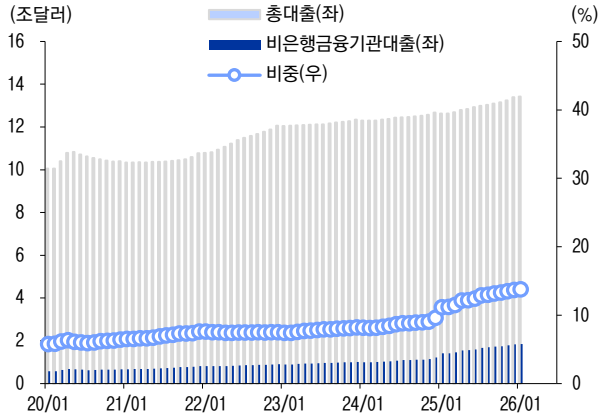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주요은행 사모대출 관련 익스포져**

회사	사모대출 관련 익스포저
Wells Fargo	597억 달러
Bank of America	332억 달러
PNC	295억 달러
Citigroup	258억 달러
JPMorgan	222억 달러
합계	약 1,7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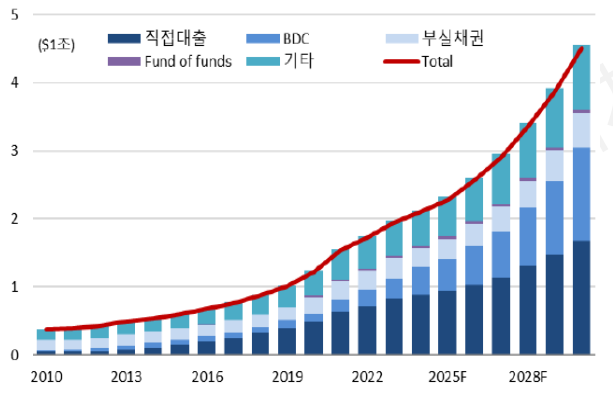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 은행권 총대출과 비은행금융기관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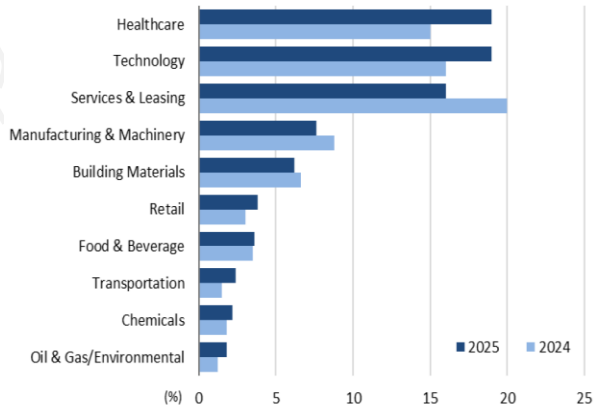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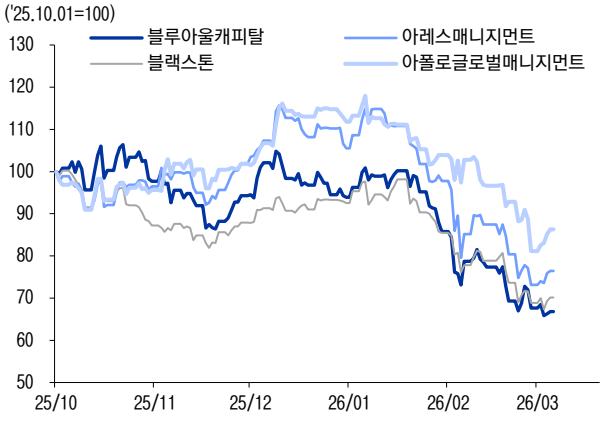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25년 사모 직접대출 섹터별 신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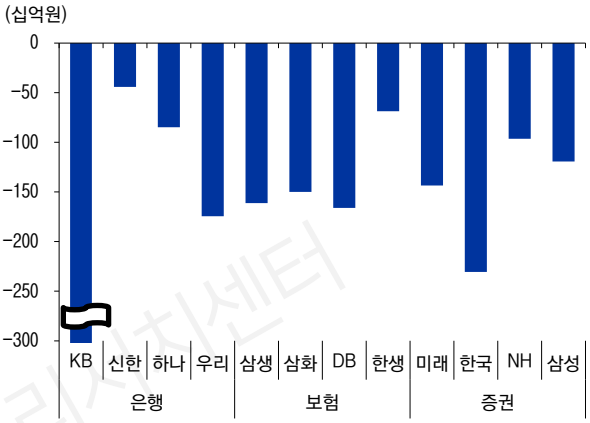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사모신용 관련 운용사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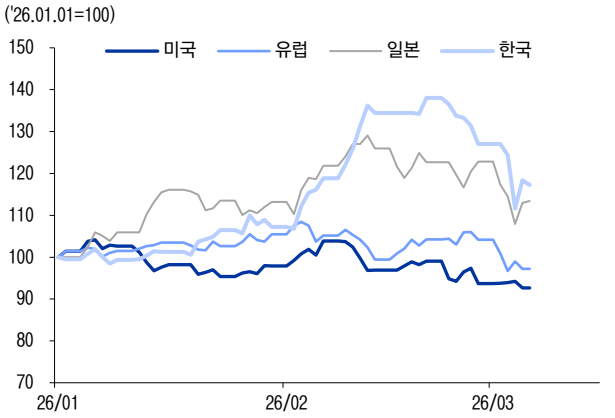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 금융주 외국인 누적순매수(30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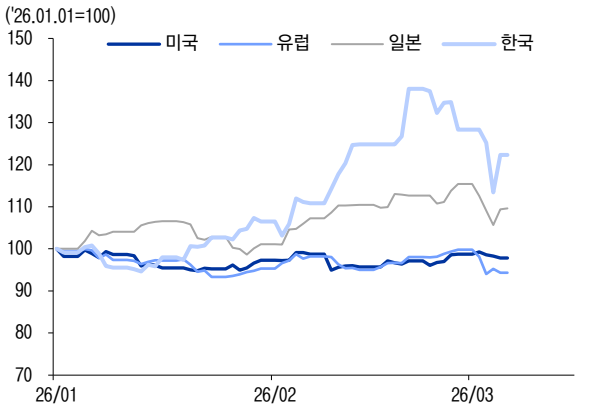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주요국 연초 이후 은행업종 주가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요국 연초 이후 보험업종 주가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한국 기업성장펀드(BDC) 제도 시행

구분	내용
정의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투자대상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벤처조합 등 에 60% 이상 투자
투자방법	• 증권 매입(주식 및 주식연계채권) 또는 금전 대여(40%한도)
투자자보호	• 만기 5년 이상, 최소모집가액 300억원, 운용사 시딩투자 및 의무보유
상장 관련	• 설정 90일 이내 코스닥에 집합투자증권(펀드) 형태로 상장
운용인가	• 기존 종합운용사(42개)는 시행일 즉시 인가, 신규 VC, 신기사 등은 특례인가
향후일정	• 3/17 부터 제도시행,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 및 운용사별 상품출시/상장 추진

< BDC의 운용대상 >

주투자대상기업 60% 이상	안전자산 10% 이상	재량 30% 미만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단, 코스닥 상장기업 및 조합 등은 각각 30%까지 계산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에 따라 운용 코스닥, 조합 등도 추가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8.7% 11.3%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1. 0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